

# 임진왜란 초기 봉화 小川 전투의 전개와 전쟁사적 의미

노영구\*

- I. 머리말
- II. 소천 전투 이전의 경상도 북부 상황
- III. 봉화 小川 전투의 배경과 전투 양상
  - 1. 소천 전투의 배경 ; 강원지역 일본군의 남하와 경상도 지역 침입
  - 2. 柳宗介 의병 부대의 편성과 소천 전투의 경과
- IV. 맺음말 : 봉화 小川 전투의 역사적 의미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북부 지역을 침공한 일본군 제 4군의 동향과 이들의 경상도 북부 지역 진출을 저지한 柳宗介 부대의 봉화 小川 전투의 경과 및 이 전투가 이후 전황에 미친 영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천 전투에서 수백 명의 柳宗介 의병 부대는 다수의 일본군을 상대로 서전에서 승리하는 등 일본군의 기세를 크게 위축시켰다. 이후 일본군의 기습으로 결국 패하였으나 류종개 의병 부대의 활약으로 3일 동안 일본군의 경상도 북부 내륙으로의 진출을 저지하였다. 3일 간의 지연전으로 安東 일대 조선군은 군사력을 급히 정비하여 방어에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소천 전투와 이후의 성공적인 방어전의 결과 충청도, 강원도와 경상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교수 / wonju99@kndu.ac.kr

도 북부를 연결하고 이 지역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일본군의 전략적 목표가 좌절되었다는 점에서 그 전투사적인 의미가 크다. 더 나아가 소천 전투를 계기로 경상도 북부 지역을 발판으로 조선군은 본격적인 반격으로 나아갔고 일본군은 경상도에서 크게 위축되었다. 임진왜란 초기 국면을 조선에 유리하도록 하는데 경상도 북부의 여러 전투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柳宗介, 임진왜란, 金功, 義兵, 小川

## I. 머리말

현대 국내의 임진왜란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이룬 부문은 잘 알려져 있듯이 의병에 대한 연구일 것이다. 임진왜란의 의병은 이 전쟁이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였다는 일제시대 이후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연구 주제이며 동시에 임진왜란 전후 조선의 향촌 사회에 나타난 다양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각 지역의 주요 의병장에 대한 다양한 문집이나 일기 등의 자료가 적극 발굴 활용되면서 지방 차원에서 나타난 임진왜란의 여러 양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등 많은 성과도 나타났다.<sup>1)</sup> 최근에는 이에서 더 나아가 전쟁 수행과정에서 보이는 각 지역별 의병 부대의 역할과 비중, 그리고 의병과 관군과의 관계 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등 의병 연구에서도 많은 진전이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의병관련 연구에서 잘 활용되지 않던 일본군의 동향에 관련된 일본의 여러 자료도 연구에 적극 활용되면서 이해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sup>2)</sup> 최근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등 여러 관련 단체 주최의 일련의 발표를 통해 임진왜란 초기 각 지역별 동향 및 주요 전투의 경과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임진왜란의 경상도 주요 지역의 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주목된다.<sup>3)</sup>

본 연구는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7월 말 봉화의 소천 지역으로 침공한 일본군 3천여 명을 柳宗介가 이끈 조선 의병 600여명이 맞서 싸워 일본군의 경상도 북부 지역 장악을 저지한 전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전

- 
- 1) 노영구, 「임진왜란 의병에 대한 이해의 과정과 새로운 의병 이해의 방향」, 『한일군사문화연구』 13, 2012, 193쪽.
  - 2) 김경태, 「임진전쟁 초기 경상좌도 일본군의 동향과 영천성 전투」, 『군사』 95, 2015 ; 김경태, 「임진전쟁기 경주 안강 전투와 강화 교섭 국면의 변동」, 『한국사학보』 62, 2016 등.
  - 3) 정혜은, 「임진왜란 의병 연구의 성과와 전망」, 『임란의병사의 재조명』, 안동시·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2012.

투에 대해서는 『선조수정실록』 등의 주요 자료에 류종개 등의 활약과 장렬한 최후 등에 대한 간략한 언급은 있지만 전투의 배경과 구체적인 전투 경과, 그리고 전투 이후의 양상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소천 전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단독 연구는 보이지 않고 이형석의 『임진전란사』와 『경북의병사』 등의 임진왜란 통사 등에 임진왜란 중 경상도 지역의 주요 전투의 하나로 정리되어 있으나 전투가 일어난 날짜나 구체적인 경과 등에서 내용상 오류도 보이고 있다.<sup>4)</sup> 그 외에 『봉화군사』에 전체적인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 안동지역 의병의 활약을 검토한 여러 논문에서 간략히 이 전투가 언급된 정도이다.<sup>5)</sup>

이상의 여러 연구를 통해 봉화 소천 전투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전투의 경과나 일본군의 동향 등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각 연구 사이의 내용상 차이도 적지않게 보이는 등 이 전투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상의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드러난 몇 가지 미비한 측면이나 내용상 차이를 검토하고 관련된 주요 인물의 문집 등 자료와 함께 당시 경상도 북부 지역을 침공한 일본군 제 4군의 동향을 함께 검토하여 이 전투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분명히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후 경상도 지역 전반의 전황에서 미친 영향 등을 밝혀 임진왜란사 연구에서 이 전투를 정당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작은 초석을 놓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적 차원의 구체적인 이해를 통해 임진왜란 전반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이형석, 『임진전란사』 상, 1867, 485~487쪽;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경북의병사』, 경상북도, 1990, 244쪽.

5) 봉화군, 「소천 전피현 싸움」, 『봉화군사』, 2002; 정진영, 「안동 지역의 임란의병」, 『안동문화연구』 4, 1990;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근시재 金垓의 의병활동」, 『군자리, 그 문화사적 성격』, 토우, 2000; 정해은,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 안집사 김륙의 역할과 활동」, 『영남학』 28, 2015 등.

## II. 소천 전투 이전의 경상도 북부 상황6)

경상도 북부인 안동 지역에 일본군의 침입 소식이 전해진 것은 부산포가 함락된 다음날인 4월 14일경이었다. 안동과 인접한 상주에 왜선 수백 척이 부산포 앞 바다에 나타났다는 내용이 담긴 官報가 전해지고 이 지역 군사들의 출동 명령이 내려진 것은 14일인 것으로 보아 안동 일대에도 대체로 이 무렵 동일한 내용의 관보가 전해졌을 것이다.7) 다음날에는 부산포의 함락 소식과 경상도 지역 군사 동원을 명하는 관찰사 김수의 병력 동원 명령이 하달되었다.8) 이에 따라 안동 지역의 경우에는 먼저 소집된 군사는 안동판관 尹安性이, 나머지 군사들은 안동부사 鄭熙積이 인솔하여 차례로 출발시켜 울산의 좌병영으로 출발하였다.9) 좌병영에 도착한 이후 판관만 남고 안동부사는 안동으로 복귀하였다.

4월 21일 경주와 대구에 일본군이 도달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안동이 일본군의 협공을 받을 것을 우려한 안동부사 정희적은 그날 저녁 청송의 산간지대로 급히 피난을 떠나게 된다. 안동부사가 안동을 떠나자 土民들은 창고의 기물을 탈취하여 창고가 비는 등 안동부 일대의 행정력은 거의 마비되고 주변의 산간 고을만 보존되었다. 울산에서 탈출한 안동판관 윤안성이 26일 안동으로 돌아와 군사를 모으고자 하였으나 호응하는 사람이 없자 윤안성은 풍기 지역으로 도주하였다. 다만 예안 현감 신지제만이 자리를 지키고 일본군의 공격에 대비함에 따라 안동 지역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10)

한편 상주를 점령한 일본군 제 2군의 일부가 군위, 비안을 거쳐 4월 27일 예천의 다인현에 주둔하였다.11) 이 일본군은 가토 기요마사 휘하의 부대로

6) 본 장의 주요 내용은 필자의 앞의 논문(2000)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7) 趙靖, 『壬亂日記』, 壬辰 4월 14일.

8) 이탁영, 『征蠻錄』 乾, 壬辰年 4월 15일.

9) 정사성, 『芝軒集』 卷3, 「임진일록」 4월 17일, 18일.

10) 金垓, 『鄕兵日記』 壬辰 4월.

가토 기요마시는 영천과 신녕 점령 후 부대를 2개 부대로 나누어 分進挾擊하며 북상하였다. 그 중 한 부대의 일본군은 안동부를 점령하고자 안동으로 진입하는 길목인 豊山으로 이동하였으나 당시 풍산에는 좌방어사 성응길이 이끄는 조선군이 주둔하고 일본군의 북상을 저지하였다.<sup>12)</sup> 이 전투에서 안동의 投石軍(擲石軍)이 큰 활약을 하여 안동으로 진입하는 것이 저지되고 多仁 일대로 물러남에 따라 안동 지역은 한동안 일본군의 위협에서 벗어났다.<sup>13)</sup> 특히 이 전투의 결과 죽령을 통해 북상을 시도하던 일본군의 기도는 좌절되면서 죽령 아래 여러 고을은 일본군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경상도 북부의 군사력 기반은 유지될 수 있었다. 죽령 일대를 장악하지 못하고 북상한 일본군이 한성 함락과 한반도 북부 지역의 장악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점령을 시도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안동으로 진입하고자 하던 일본군을 저지함에 따라 일본군의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지만 경상도 북부 지역의 주요 지방관이 산악 지대 등으로 대피함에 따라 5월에 들어서면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고 奉化 일대에서는 난민들이 사림의 주요 지역 기반인 鄉所를 습격하기도 하는 등 민심의 이반 현상마저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sup>14)</sup> 지역민들의 동요현상이 심해지자 5월 15일에는 안동 읍내의 擲石軍 500여명이 모여 이 일대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이들을 통솔할 장수가 없고 군량미 등 필요한 물자가 부족하여 제대로 활동하기 어렵게 된다. 게다가 지역의 사림들도 擲石軍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대부분 도주하여 경상도 북부 지역은 국가 행정력과 함께 지역 사림의 향촌 장악력도 급속히 약화되었다. 한때 모였던 擲石軍들도 며칠 후 흩어져버렸다.<sup>15)</sup> 통제력이 상실된 경상도 북부 지역 주민들은 산간 지역으로 도주하거나 심지어 태백산맥을 넘어 영동 지방으로 들어가기도 하였다.<sup>16)</sup> 남

11) 『亂中雜錄』 권1, 壬辰年 4월 27일.

12) 이호준, 「임진왜란 초기 조선의 군사체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98~101쪽.

13) 趙靖, 『임란일기』 壬辰 4월 28일.

14) 정사성, 『芝軒集』 卷3, 「임진일록」 5월 11일.

15) 정사성, 『芝軒集』 卷3, 「임진일록」 5월 15일, 19일.

아 있는 일부 주민들은 일본군에 붙어 약탈을 일삼기도 하였다.

5월 이전까지 일본군의 주력의 급속한 북상으로 인해 일본군에 의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점령정책이나 수탈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5월에 들어서면서 일본군의 조선에 대한 지역 점령 및 수탈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5월 초 한성을 점령한 일본의 장수들은 5월 8~9일 경 한성에 모여 합의에 따라 8도를 분담하여 장악하고 이를 통해 군량과 물자를 획득하여 이후의 전쟁을 준비할 것을 결정하였다.<sup>17)</sup> 이에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의 제6군은 전라도를,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의 제7군은 경상도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충청도는 시코쿠의 영주인 후쿠시마 마사노리(福島正則) 등이 담당하고 경기는 우키타 히데이에, 함경도는 가토 기요마사, 평안도는 고니시 유키나가 등이 담당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5월 초 일본군 1, 2군이 한성을 점령한 이후 조선에 상륙한 일본군의 후속 부대는 자신의 지역으로 이동하여 본격적인 점령 정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毛利輝元의 제7군 30,000명은 한성으로 북상하지 않고 그대로 경상도 지역의 장악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sup>18)</sup>

일본군의 조선 점령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교통로에는 일본군이 임시 거점을 마련하고 주둔하면서 조선인 반역자들과 함께 주변 일대를 노략질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산간 일대에 피신해 있던 주민들, 특히 土族들이 점차 이들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조선인들은 일본군의 보복이 두려워 소수의 일본군에 대해서도 선불리 대응하지 못하고 이들의 노략질에서 피해있기만 할 뿐이었다. 특히 倭敵化된 조선의 일부 농민들은 주변 지리에 익숙하였으므로 이들에 의한 조선인들의 피해가 더욱 컸다.<sup>19)</sup> 이제 일본군과 부역한 조선인의 공격으로부터 피난지를 방어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사족

16) 『亂中雜錄』卷1, 임진년 5월 20일.

17) 北島万次, 『豊臣秀吉の朝鮮侵略』, 吉川弘文館, 1995, pp.48~49.

18) 池内宏, 『文祿慶長の役』別篇第一, 東洋文庫, 1936, p.104.

19) 신홍(신해진 역), 2010, 『역주 난적휘찬』 임진 4월 28일, 역락; 趙靖, 『임란일기』 임진년 5월 2일, 14일

주도 의병의 단초는 여기서 나오게 된다.<sup>20)</sup> 경상좌도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柳宗介의 의병 부대의 편성을 보여주는 다음의 자료는 당시의 이 지역 사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앞서 경상좌도의 山峽과 해안가의 10여 고을은 賊路와의 거리가 조금 멀어서 사족들은 험한 지역을 의지하여 병란을 피하고 閭里에서는 疑懼하여 모두 ‘만일 군사를 모으면 적을 불러들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여 전혀 군사를 모으는 자가 없었다. 그런데 예안 사람인 전직 典籍 柳宗介만이 홀로 鄉兵 수 백 명을 모아 태백산에 웅거하여 스스로 지켰다.<sup>21)</sup>

柳宗介의 의병 조직 직전의 경상도 북부 상황을 극명히 보여주는 위의 자료를 통해 의병의 조직은 기본적으로 피난지에 웅거하여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으로 의병이 조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5월 중순 이후 조선 각 지역을 장악하고자 하는 일본군과 부역하는 조선인의 노략질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면서 6월 들어서면서 경상좌도 여러 곳에서 초기적인 형태의 의병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5월 말 일본군이 군위와 의성 일대를 약탈하자 品官 申氏가 마을의 大小人을 이끌고 일본군을 막기로 하고 소수의 정병을 거느리고 가서 일본군 선발대의 의성 일대 진입을 막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본대의 공격으로 의성 지역은 크게 피해를 입게 된다.<sup>22)</sup> 즉 5월 하순까지 경상도 북부 지역에서는 아직 조직화된 의병 부대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경우는 그다지 보이지 않았다.

경상도 북부 일대에서 최초로 조직화된 의병이 일어난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예안 지역은 현감 신지제가 6월까지 고을을 지키고 있으면서 아직 이 지역에 대한 일본군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았던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사족들이나 품관들이 일본군의 보

20) 정진영, 「임란전후 상주지방 士族의 동향」, 『민족문화논총』 8, 1987, 115쪽 ;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340~341쪽.

21) 『宣祖修正實錄』 卷26, 선조 25년 8월 戊子.

22) 신홍(신혜진 역), 2010, 『역주 난적휘찬』 壬辰 5월 29일, 역락.



복 등을 두려워하여 적극적으로 의병을 조직하기 어려웠던 것과는 여건이 달랐다.<sup>23)</sup> 다음으로 4월에 경상도안집사로 임명된 金玠이 5월에 안동 지역에 도착하여 招募 활동을 시작한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sup>24)</sup> 안동 지역에 도착한 김륙은 의병을 조직하고 행정체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예안 현감 신지체에게 안동부사를 겸하도록 하고 金垓를 安東義兵將으로 임명하였다.<sup>25)</sup> 6월이 되면 안동 지역의 여러 의병 부대 사이에 연합전선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관군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였다. 당시 안집사 김륙은 고을 아래의 행정 단위인 洞과 같은 촌락 단위로 軍丁을 찾아내어 의병을 일으키게 하고 이러한 의병을 조직한 사람을 의병장으로 추인하여 기존의 무너진 행정 및 군정 체계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경상도 북부 지역의 의병은 다른 지역과 달리 초기부터 관군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적었고 상호 협조와 연합 작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심지어 이 지역에서는 의병과 관군의 명목이 혼용되기도 하였다.<sup>26)</sup>

안집사 김륙의 활약에 경상도 북부 지역이 안정되고 군사력이 정비되면서 조선군의 대응도 점차 본격화되었다. 조선군의 대응이 본격화되자 6월에 들어서면서 일본군은 안동 지역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여 6월 5일에는 龍宮과 醴泉에 일본군이 나타났다. 이는 당시 용궁현감 우복룡의 활동과 관련이 있었는데 우복룡의 공세로 인해 문경에 건설되고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숙소 건설은 어려워졌다. 경상도 북부 지역의 조선 의병의 조직과 관군의 공세로 인해 문경이 위협을 받자 毛利輝元의 부장이었던 吉川廣家は 군사를 거느리고 본진인 개령을 떠나 문경으로 이동하여 우복룡을 공격하기도 하였다.<sup>27)</sup>

23) 5월 18일 경 상주와 龍宮에 주둔하던 수십명의 일본군이 예안과 안동 官門까지 침입하였다가 물러나기도 하였다(『芝軒集』 卷3, 「壬辰日錄」 임진년 5월 18일).

24) 金玠의 安集使 활동에 대해서는 정해은,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 안집사 金玠의 역할과 활동」, 『영남학』 28, 2015에 자세하다.

25) 金玠, 『柏巖先生文集』 卷7, 「年譜」 만력 20년 5월.

26) 金玠, 『柏巖先生文集』 卷5, 「條陳慶尙道軍情賊勢狀啓」.

27) 정사성, 『芝軒集』 卷3, 「壬辰日錄」 6월 13일.

경상도 북부 지역 조선 관군의 정비와 강화, 의병의 조직 확대에 따라 일본군의 대응도 본격화되었다.<sup>28)</sup> 6월 14일 毛利輝元은 吉見元頼에게 경상도 동북부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이동할 것을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吉見元頼은 毛利元康의 병력과 합세하여 17일 상주를 거쳐 의성을 통과하여 22일에는 안동으로 들어와 수일 동안 안동 일대를 약탈하였다.<sup>29)</sup> 毛利元康의 주력은 안동부성에 본진을 펼치는 동안 吉見元頼의 군사들은 안동의 동쪽인 禮安을 점령하고 7월 8일까지 예안성에 주둔하였다. 그러나 예안 및 안동 일대에 대한 조선군의 저항이 점차 거세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안집사 金功은 안동에서 물러나 영주에 있으면서 수성장 등을 임명하고 일본군에 대해 반격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sup>30)</sup> 예안의 일본군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7월 9일 안동의 본진으로 돌아갔고 19일에는 안동에서도 물러나 풍산현의 九潭村으로 이동하여 일부 일본군은 10여일 동안 이 지역을 점령하고 노략질을 하였다.<sup>31)</sup> 안동에서 철수한 일본군 본진은 17일 자신의 근거지였던 선산과 개령으로 완전히 물러났다. 선산과 개령에 주둔하던 일본군 7군의 일부가 안동 일대를 공격하여 점령한 것은 경상도 지역에 대한 점령을 확고히 하고자 한 의도도 있었지만 동시에 부족한 군량미를 현지에서 징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sup>32)</sup>

28) 이하 경상도 동북부 지역에 대한 일본군의 6, 7월 공세에 대해서는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선산 일대 일본군 동향과 부사 丁景達의 활동」, 『구미(선산)지역의 임진왜란 연구』, 임진왜란정신문화선양회, 2016, 43~44쪽 참조.

29) 『吉見元頼朝鮮日記』 6월 15일, 6월 17일, 6월 23일.

30) 『亂中雜錄』 임진년 7월 9일.

31) 金功, 『栢巖先生文集』 卷7, 「年譜」 萬曆 20년 7월 ; 金垓, 『鄕兵日記』 임진년 7월 9, 19일.

32) 北島万次, 『朝鮮日日記 高麗日日記』, そして, 1982, pp.169~170.

### Ⅲ. 봉화 小川 전투의 배경과 전투 양상

#### 1. 소천 전투의 배경 ; 강원지역 일본군의 남하와 경상도 지역 침입

1592년 7월 중순 경상도 북부 지역에서 일본군이 물러난 것은 7월을 계기로 임진왜란 전체 국면에서 일본군에게 있던 전쟁 주도권이 차츰 변화하기 시작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7월 초의 한산해전을 시작으로 전라도 鎭山 지역에 대한 조선군의 압박, 熊峙 및 槧峙 전투의 승리, 명군의 평양성 공격 등 조선과 명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7월 14일 한산해전의 패배를 보고 받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와키자카 야스하루 등에게 해전을 중지하고 거제도에 성을 축조하고 지키도록 하고 대신 陸戰으로 조선의 수군을 토벌할 것을 명령하였다.<sup>33)</sup> 6월 중순 이후 경상도 전역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시도한 毛利輝元의 일본군 제7군이 조선의 관군과 의병의 대응으로 실패하고 물러날 무렵 강원도를 담당한 일본군 제4군도 이 지역의 지배력 확보에 나서고 있었다.

강원도를 담당한 모리 요시나리(森吉成 또는 毛利吉成)의 일본군 제4군은 5월 19일 한성을 떠나 북상하여 임진강에서 고니시 유키나가, 가토 기요마사 등의 1, 2군과 헤어져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인 自等岨을 넘어 강원도를 침략하였다. 김화, 金城을 경유하여 6월 5일 회양부사 金練光의 저지를 뚫고 淮陽府에 도달하였다. 이어 일본군은 북상하여 12일에는 강원도와 함경도를 가르는 鐵嶺에서 이를 저지하는 함경도 남병사 李渾의 군대를 격파하고 안변부로 진입하였다. 여기서 모리의 일본군은 17일 가토 기요마사의 2군과, 18일에는 이를 후속하는 나베시마(鍋島直茂) 군과 합류하였다. 이후 일본군 4군은 이들과 헤어져 원산을 거쳐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다시 강원도로 진입하여 歙谷에 도달하였다. 歙谷에서 모리 요시나리는 諭告를 내고 그가 강원도 지역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알렸다.<sup>34)</sup>

33) 「協坂文書」.

일본군 제4군의 동향은 이후 약 1개월 동안 보이지 않지만 7월 상순 삼척에 도착한 것을 볼 때 천천히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척에 도달한 일본군은 계속 남하하여 평해와 울진을 거쳐 8월 초에는 경상도의 寧海府에 도달하였다. 당시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는 歙谷 일대의 저항 이외에는 그다지 일본군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아 일본군은 여유있게 계속 남하하였다.<sup>35)</sup> 일본군 제4군이 영해까지 도달한 것은 8월 초 이전으로 추정된다.<sup>36)</sup> 영해에 도달하기 전 울진에서 일본군은 군대를 나누어 1대는 동해안을 따라 영해 방면으로 계속 남하하였고, 1대는 울진에서 서진하여 태백산맥을 넘어 예안 일대로 침입하게 된다. 류종개 의병부대가 7월 하순 봉화 小川 일대에서 일본군을 저지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일본군의 상황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한편 울진에서 계속 남하하던 또다른 1대의 일본군은 이후 영해부사 한효순의 저지를 받게 된다.

## 2. 柳宗介 의병 부대의 편성과 소천 전투의 경과

앞서 보았듯이 경상도 북부 지역에서 가장 먼저 조직된 柳宗介 의병 부대는 일본군과 부역 조선인의 공격으로부터 피난지를 지키기 위해 조직되었다. 그러나 부대의 편성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의병부대의 편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예를 들어 任屹, 金中淸, 尹欽臣·欽道 형제, 金麟祥 등의 인물들이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金涌의 동생으로 김성일의 조카인 金澈도 유종개의 막하에 종군하며 군사에 대한 여러 계획을 조언하였다.<sup>37)</sup> 이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副將이었던 任屹이었다. 임홀은 朴承任의 문하에서 안집사 김륵, 구전 金中淸 등과

34) 일본군 제4군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京口元吉, 『秀吉の朝鮮經略』, 白揚社, 1939, pp. 193-194 참조.

35) 『艮齋先生文集』 卷2, 「上行在疎」.

36) 池内宏, 앞의 책, pp.395~396.

37) 『鶴沙先生文集』 卷8, 「成均進士金公墓誌銘」.

사사한 사이였다.<sup>38)</sup> 따라서 지역에서의 신망이 매우 높은 사림으로 당시 안집사 김륵의 군사력 확대 및 정비, 연합작전 등에 적극 협조하는 발판이 되었다. 柳宗介 의병 부대가 언제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6월 중순 이후 본격적으로 의병 부대 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도 북부 지역의 선비들은 인근의 산악 지역으로 피난하여 상황을 보고 있었으나 6월 초순에 하삼도 근왕병이 용인에서 패배하여 물러났고 6월 중순 평양이 함락된 이후 이 지역에 위기감은 크게 증폭되었다.<sup>39)</sup> 또한 6월 중순부터 일본군 7군의 일부가 안동 일대를 공격하여 7월 초순까지 안동, 예안 일대를 장악하고 주변 지역에 대해 위협하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난지의 방어를 위해서도 의병 부대의 편성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의병 부대의 편성은 당시 안집사 김륵의 역할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일본군 제7군의 공격으로 안동과 예안이 함락되자 김륵은 영주로 물러나 있으면서 주요 지역에 수성장을 임명하여 일본군에 대해 반격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sup>40)</sup> 김륵은 흩어진 군사를 수습하고 향병을 더 모아 고을 사람 중 유익하고 재간있는 자를 장수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게 하였다. 그리고 의병장에게 관군과의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였다.<sup>41)</sup>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문하생이었던 임흥이 안집사 김륵의 의병 확충과 군사력 재편 노력에 적극 호응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다음의 자료는 류종개 의병부대의 편성 과정을 잘 보여준다.

임진년에 倭奴가 대거 침입해 들어오자 영남 지방이 먼저 그 兵禍를 당하여 여러 고을이 와해되었다. 公(任屹)은 스스로 대대로 국가의 녹을 받은 신하로서 차마 앉아보지 못하고 비분강개하여 눈물을 뿌리면서 교서관 正字 柳宗介

38) 『大山集』 卷44, 「嘯臯朴先生續集序」.

39) 『響山集』 卷17, 「城隱申公行狀」.

40) 『亂中雜錄』 임진년 7월 9일.

41) 정해은, 앞의 논문(2015), 376~377쪽.

및 金中淸, 尹欽臣, 欽道 형제와 함께 모의하고 倡義하여 처음으로 춘양으로부터 起兵하고 수백명을 모아서 얻었으니 이른바 奈城兵이었다. 柳公(柳宗介)을 대장으로 추대하고 공은 副將이 되었는데 16조의 約束을 정하여 동지들을 격려하였다.<sup>42)</sup>

위의 자료는 비록 임흥에 대한 기록이지만 柳宗介 의병 부대 조직 과정에서 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장으로 임흥 대신 柳宗介가 추대된 것은 柳宗介의 개인적인 성향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류종개는 본관은 豊山, 자는 季裕로 빈의 아들이다. 그는 1579년(선조 12) 진사시에 합격하고 1585년 식년문과에 丙科로 급제하여 교서관 정자와 전적을 역임하고 향리로 돌아와 있던 중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의 가계는 다수의 인물이 무반을 거친 집안으로 고조부는 宣略將軍 忠武衛副護軍, 증조부는 忠順衛忠毅校尉 등을 거쳤고, 조부는 承訓郎 眞寶訓導로 처음으로 예안의 서촌으로 와서 정착하였다.<sup>43)</sup> 즉 15세기 무렵까지 류종개의 집안은 상당히 무반 가문의 성격이 매우 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무반 가문의 면모가 강한 것은 유독 柳宗介의 가계에서만 보이는 특이한 양상은 아니었다. 16세기 주요 영남지역 사립과의 가계를 보면 여말선초에는 문반직보다는 무반직을 띤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경향은 16세기 조선사회에 崇文賤武 의식이 확산되면서 시족들의 성향이 성리학적인 체질로 변화하였지만 16세기 후반까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sup>44)</sup> 柳宗介는 본래 儒士으로서 易學에 뛰어났던 부친인 유빈의 영향으로 易學에 조예가 깊었지만 평소 兵書를 읽었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慷慨하고 志概가 있는 것으로 보아 武的인 면모가 매우 강하게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45)</sup> 따라서 임흥이 의병 편성에 있어 많은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병 부대의 대장으로 柳宗介가 추대될 수 있었다.

42) 『順菴先生文集』 卷24, 「童蒙教官龍潭任公墓誌銘」.

43) 『月川先生文集』 卷6, 「유군미숙묘지명」.

44) 이수건, 『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학교출판부, 1979, 162쪽.

45) 『光海君日記』 광해군 7년 7월 己未.

柳宗介 의병 부대는 규모는 수백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16조목의 약속과 7조목의 軍令을 정하여 규율을 통해 엄정한 군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16조목의 약속 중에서 현재 알려진 것은 다음의 10가지이다.

1. 거짓된 말을 하지 말고,
2. 놀라서 움직이지 말고,
3.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4. 해괴하게 장난하지 말고,
5. 아랫 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지 말고,
6.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능멸하지 말고,
7. 공을 자랑하지 말고,
8. 어려움을 사양하지 말고,
9. 뜻이 다르고 같음으로써 즐거움과 노여움을 삼지 말고,
10. 즐거움과 노여움으로써 향하거나 등지지 말 것이다<sup>46)</sup>

나머지 6조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軍中の 體貌에 관련된 것이었다.<sup>47)</sup> 7조목의 軍令은 다음과 같다.

1. 북소리를 들으면 나아가 싸우고 징소리를 들으면 그쳐야 한다.
2. 북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전진은 있을지언정 후퇴는 없으며 합부로 후퇴하는 자는 벌 것이다.
3. 징소리가 두 번 들린 연후에 후퇴할 것이요 후퇴함에 뒤지는 자는 벌 것이다.
4. 군중의 기밀을 누설하는 자는 벌 것이다.
5. 모이는 기한에 늦게 이르는 자는 벌 것이다.
6. 사사로이 민간의 물건을 취하는 자는 비록 그것이 작더라도 반드시 벌을 줄 것이다.
7. 軍令을 따르는 자는 상을 줄 것이고, 軍令을 따르지 않는 자는 벌을 줄 것이다<sup>48)</sup>

46) 無訛言無驚動。無喧嘩無戲誕。無以下凌上。無以賤凌貴。無伐功無辭難。無以異同爲喜怒。無以喜怒爲向背。

47) 『順菴先生文集』卷24, 「童蒙教官龍潭任公墓誌銘」.

7조목의 군령에 입각하여 류증개는 날마다 군사들의 소집과 훈련에 열중하여 당시 경상좌도 지역의 여러 의병 부대 중 유력한 세력으로 인정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관군이 재편되면서 일본군에 대항하고 있었지만 군령과 군사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한쪽이 일본의 공격을 받아도 인근에서 이를 구원하지 않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의병의 작전은 주로 일본군의 이동로에 복병을 두었다가 기습하는데 그쳤으므로 일본군의 대규모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던 의성의 의병장이었던 申佐은 7월 하순 당시 이 지역의 주요 의병장이었던 金垓, 柳宗介, 鄭世雅에게 편지를 보내어 一直縣에 있는 정자에서 회동하여 의병부대 간의 연합 편성과 작전을 도모하였다.<sup>49)</sup> 一直縣의 회동에서 金垓를 총대장으로 하고 길을 나누어 복병을 두되 左衛와 右衛로 나누어 좌위는 申沁이, 우위는 金翥이 관장하기로 결정하여 경상좌도 일대의 의병을 하나의 체계화된 조직으로 편성하고자 하였다.<sup>50)</sup> 일직현의 회동 양상을 통해 7월 경 경상좌도 지역의 유력한 세 의병 부대의 하나로 柳宗介의 부대가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일직현 회동 직후인 7월 하순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던 일본군 제4군의 한 대가 울진에서 태백산맥을 넘어 경상도 북부 지역으로 침공하였다. 일본군은 평해와 울진 등지를 분탕하고 廣比村을 경유하여 태백산맥을 넘었는데,<sup>51)</sup> 광비촌은 울진현에 있는 廣比院으로서 울진현에서 서쪽으로 90리에 있는 산간 오지였다.<sup>52)</sup> 19세기 중반 김정호가 제작한 『東輿圖』를 보면 울진현에서 錦溪川(오늘날 왕피천)을 따라 불영 계곡을 거슬러 올라오면 경상도 英陽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廣比嶺이 보인다. 이곳은 오늘날 36번 도로가 지나가는 곳으로 아마도 일본군은 이 고개를 넘어 경상도 북부 지역으로 침입하였음

48) 聞鼓則戰 聞鈺則止 鼓聲不絕 有進無退 敢退者斬 鈺聲再聞然後退 退而後者斬 漏洩軍機者斬 期會後至者斬 私取民間物者 雖小必罰 用令者賞不用令者罰.

49) 『城隱先生逸稿』, 「與道內義將金翰林垓柳正字宗介鄭進士世雅」.

50) 신홍(신해진 역), 2010, 『역주 난적회찬』 임진년 7월 29일, 역락.

51) 『亂中雜錄』 임진년 8월 1일.

52) 『東國輿地勝覽』 卷4, 울진현 「驛院」.



에 틀림없다.

小川 방면으로 일본군의 침입이 알려지자 柳宗介는 안집사와 절도사에게 통문을 보내어 구원을 요청하고 7월 26일 노루재[獐峴]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薩扶嶺(혹은 전피현) 아래에 복병을 두어 일본군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sup>53)</sup> 당시 경상도 북부 지역은 7월 19일 일본군 제7군이 약 한달동안 주둔하던 안동에서 물러나 풍산현의 九潭村으로 물러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로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경상좌병사 박진이 청송에 있다가 일본군이 안동에서 물러나자 안동으로 곧바로 들어와 성을 수습하고 일부 군병을 확충하였으나 아직 충분한 상황은 아니었다.<sup>54)</sup> 또한 한 대의 일본군이 平海 일대로 남하하고 있어 이를 저지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소천 지역으로 들어오는 일본군을 저지하려는 柳宗介 의병부대에 안집사와 병사가 충분한 지원을 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柳宗介 부대는 무기도 미처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지만<sup>55)</sup> 이 일대에서 일본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군사력이었으므로 小川 지역으로 출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살부령에 매복한 류종개 부대는 일본군의 선봉을 기습하여 크게 격파하여 서전을 승리로 장식하였다. 그러나 29일 일본군의 본대가 온다는 첩보를 받고 군사를 거느리고 助羅의 물가로 나아가 구원병을 기다렸으나 구원병은 오지 않고 오히려 일본군의 기습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난중잡록』에 다음과 같이 그 정황이 잘 나타난 있다.

강원도의 적이 평해, 울진 등지를 분탕하고 장차 광비촌을 넘어서 온다는 말을 듣고 掌書 윤흥신, 윤흥도 등과 더불어 군사를 거느리고 맞아 치려고 하

53) 『順菴先生文集』 卷24, 「童蒙教官龍潭任公墓誌銘」.

54) 『鄉兵日記』 임진년 7월 19일. 김진수, 「임진왜란기 박진의 군사활동과 평가」, 『한국사학보』 60, 2015, 256쪽.

55) 『炊沙先生文集』 卷3, 「龍蛇錄」. 柳宗介 부대의 주요 인물인 김중청은 당시 류종개 부대가 백여 명을 모아 한 방면을 담당하고 한갓 無退의 군율을 믿었을 따름으로 그 세력이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苟全先生文集』 卷4, 「壬辰義兵時擬上疏」).

였다. 적의 선봉이 變服을 하고 가만히 왔으나(류종개의) 척후병이 이를 깨닫지 못하여 매복하였던 우리 군사가 모두 흩어졌다. 류종개 등이 창졸간에 적을 만나 용감하게 싸워 퇴각하지 않았으나 힘이 다되고 구원병이 없어서 마침내 살해당하였다.<sup>56)</sup>

이에서 보듯 일본군을 맞이하여 치러갈 때 일본군이 조선인으로 옷을 갈아입고 이동하므로 류종개 부대의 척후병이 이를 알아채지 못하여 도리어 일본군에게 포위되어 패하게 된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順菴先生文集』에 보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당시 柳宗介는 일본군이 나타나자 ‘우리 구원병이 이르지 않고 적의 형세가 매우 정예하니 나라를 위하여 한번 죽을 일이 바로 오늘에 있다’하고 선봉에 나서 일본군 두 명을 사살하니 일본군이 조금 물러났다. 이어서 승세를 타고 일본군을 쫓아 골짜기의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복병이 쏟아져 나오고 길이 험하여 더 이상 돌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柳宗介와 윤희신 형제, 군관 권경 등이 힘써 싸우다가 죽었고 임흥과 김중청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sup>57)</sup> 김인상은 일본군에게 사로잡혔으나 분연히 일본군을 꾸짖으며 굴복하지 않아 마침내 죽임을 당하였다.<sup>58)</sup>

소천 전투는 수백 명의 柳宗介 의병이 다수의 일본군을 상대로 서전에서 승리하는 등 일본군의 기세를 크게 위축시켰다.<sup>59)</sup> 서전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기습으로 결국 패하였지만 류종개 의병 부대는 소규모의 군사로 일본군을 견제하면서 3일 동안 경상도 북부 내륙으로의 진출을 저지하였다. 사흘 동안 소천 일대에서 일본군의 진격을 저지, 견제한 류종개 부대의 활동으로 안동 일대 조선군은 군사력을 급히 정비하여 방어에 필요한 여러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소천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이후 예안 일대를 분탕하고 풍기, 영천 등을 통해 죽령 방면으로

56) 『亂中雜錄』 임진년 8월 1일.

57) 『順菴先生文集』 卷24, 「童蒙教官龍潭任公墓誌銘」.

58) 『西厓先生文集』 卷16, 雜著「記聞」.

59) 『良齋先生文集』 卷2, 「上行在疏」.

나아가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자료는 이를 잘 보여준다.

강원도에서 온 적이 串赤, 訥川의 경계를 침범하였는데, 串赤은 풍기의 땅이고 늘천은 榮川의 경계이다. 이때 안집사가 승병 수백을 모으고 관군도 천여 명을 모아, 안집사가 곧바로 그 군사를 거느리고 일본군을 쳤다. 또한 인근 고을을 징발하여 요해처를 지키니 적이 두려워하여 드디어 돌아갔다<sup>60)</sup>

串赤은 榮川의 읍치에서 북쪽으로 33리 떨어진 고개인 串赤嶺(현재명 : 고치령)<sup>61)</sup>으로 영월에서 풍기, 榮川으로 넘어가는 요충지였다. 당시 일본군은 榮川, 풍기를 거쳐 죽령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안집사 김륙이 신속히 승병을 모으고 관군을 정비하여 이들의 진출을 저지하여 결국 일본군을 패퇴시키게 된다.<sup>62)</sup> 이 전투에 대해 『백암집』에서는 강원도의 일본군이 두 부대로 나뉘어 한 부대는 울진에서 小川縣으로 들어오는 것은 김륙이 류종개를 보내어 막고, 한 부대는 영월에서 榮川과 풍기의 사이인 骨赤峴을 넘어 오는 것을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막아 고개, 즉 竹嶺 아래 4, 5고을이 전란을 면하도록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sup>63)</sup> 『백암집』의 언급은 骨赤峴 즉 串赤嶺에서 일본군을 저지함에 따라 경상도 북부를 통해 강원도로 넘어가는 통로를 확보하고자 한 일본군의 기도가 저지되었음을 보여준다. 일본군이 강원도 남부 지역에서 골적현을 넘어 경상도 북부로 진출하였다는 기존의 이해는 강원도 지역 일본군이 동해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울진에서 두 진으로 나뉘어 한 대가 경상도 북부 지역을 침공하였다는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sup>64)</sup>

60) 自江原來賊 犯串赤·訥川之境 串赤 卽豐基之地 訥川 卽榮川之境也 時安集使召募僧兵 得數百 官軍又千餘 安集使 卽令其兵擊之 又徵傍邑分守要害 賊憚其有備 乃還退去(『炊沙先生文集』卷3, 雜著「龍蛇錄」).

61)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5, 경상도 榮川郡 「山川」.

62) 『柏巖先生文集』 卷5, 狀啓 「條陳慶尙道軍情賊勢狀啓」 安集使時 壬辰.

63) 『柏巖先生文集』 附錄(하), 「道內儒生疏」.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은, 앞의 논문(2015) 377쪽에 자세히 다.

64) 이형석도 소천 전투 이후 일본군이 다시 군을 합하여 삼척에 있는 白卜嶺을 넘어

한편 동해안을 따라 영해까지 도달하였던 일본군도 영해부사 겸 토포사인 韓孝純의 견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좌우도의 병사, 수사의 행방이 알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한효순은 영덕현령 安璣, 청하현감 鄭應聖, 평해군수 金德寬과 丑山 만호를 불러 모아 이들의 군사를 左, 右廂으로 통합 편성하여 경상도 동해안 일대의 방어체계를 정비하였다.<sup>65)</sup> 경상도 동해안 일대의 방어체계를 정비한 공으로 討捕使로 승진한 그는 강원도의 일본군이 영해 등지를 침범해오자 군관 張岌과 朴彥國 등을 매복하게 하여 일본군을 격파하여 더 이상의 남진을 저지하였다.<sup>66)</sup>

이상에서처럼 소천과 영천, 영해 등 경상도 북부 지역의 여러 전투에서 조선군에 저지된 일본군 제4군은 더 이상 경상도 북부 지역 공략을 포기하고 다시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강원도 내륙 지역 공략에 착수하게 된다. 이는 7월 중순 명군의 참전과 한산해전 등 조선군의 반격으로 인해 일본군은 8월 부터 전쟁 전략을 명으로의 진격을 일단 보류하고 조선 全域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던 것과 관련이 있다.<sup>67)</sup>

---

정선과 영월군을 침범하였다가 부대를 나누어 골적령을 넘어 경상도로 침공하였고 언급하고 있다(이형석, 앞의 책(1967), 489쪽). 그러나 동해안을 따라 내려간 일본군과 다시 합하여 북상한 이후 강원도 내륙을 거쳐 다시 경상도 북부 지역으로 남하였다는 것은 지형 및 군사의 행군 속도 등을 감안할 때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못하다.

- 65) 『當初記』 「月灘年譜」. 이후 左廂에는 울진, 평해, 영해, 영덕, 청하, 흥해, 연일, 장기 등 경상도 연안 지역을 속하게 하고, 右廂에는 경상도 북부 내륙 지역인 풍기, 영천, 안동, 봉화, 예안, 진보, 청송, 의성, 의흥, 비안, 인동을 소속시켰다. 우상은 안동부사가, 좌상은 한효순이 담당하였다. 임진왜란 초기 韓孝純의 활약에 대해서는 한영우, 『나라에 사람이 있구나-월탄 한효순 이야기』, 지식산업사, 2016, 94~96쪽 참조.
- 66) 신홍(신해진 역), 2010, 『역주 난적휘찬』, 47쪽, 역락. 『난중잡록』에는 이 때 참전한 군관은 裨山立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亂中雜錄』 임진년 8월 1일).
- 67) 參謀本部, 『日本戰史 朝鮮の役』, 偕行社, 1925, p.120.

#### IV. 맺음말 : 봉화 小川 전투의 역사적 의미

柳宗介 부대의 소천 전투는 7월 말 3일간 일본군의 경상도 북부 지역 진입을 지연시킨 전투로서 중국에는 중과부적으로 비록 패배하였지만 안집사 金玠은 柳宗介의 지연전으로 확보한 시간을 이용하여 조선군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실제 안집사 김특이 骨赤嶺(串赤嶺)에서 일본군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소천 전투에서 확보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소천 전투와 이후의 성공적인 방어전의 결과 죽령을 장악하여 충청도, 강원도와 경상도 북부를 연결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일본군의 전략적 목표를 좌절시켰다는 점에서 그 전투사적인 의미가 크다.

또한 소천 전투와 柳宗介 등의 전사를 계기로 이 지역의 사람들이 분격하여 의병의 재건과 본격적인 의병 활동에 나서게 된다. 柳宗介 의병 부대의 경우에도 살아남은 임흘 등을 중심으로 金涌, 金澈 형제가 군사를 모아 재건되었다. 8월 20일 경상좌도 지역의 주요 의병장들이 모여 동맹하고 수 천명의 병사를 조직하여 金核를 의병장으로 하는 단일한 의병 부대를 편성하게 된다. 이른바 安東別邑鄉兵의 출범이 그것이다.<sup>68)</sup>

소천 전투와 이어지는 방어전의 성공으로 경상도 북부 지역에 대한 일본군의 침공이 좌절되면서 이 지역은 안정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동별 읍향병과 같은 대규모 의병 부대를 조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은 경상도 지역 조선의 반격의 주요 근거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10월 말 이후 조선과 일본이 모두 결정적인 승기를 잡지 못하고 대치하던 상황에서 임진년 연말부터 경상도 북부 지역 의병과 관군은 상주의 唐橋 등 일본군의 주요 거점에 대한 공세에 나서 일본군을 크게 압박하여 성과를 내었다.<sup>69)</sup>

68) 『近始齋先生文集』 권4, 「龍蛇記事」.

69) 김호중, 「임란때 唐橋전투와 영남 북부지방 鄉兵의 항쟁」, 『역사교육논집』 23·24, 1999.

결론적으로 봉화 소천 전투를 계기로 일본군의 경상도 북부 지역 장악은 불가능해졌고 이 지역을 발판으로 한 조선군의 본격적인 반격으로 일본군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경상도에서 크게 위축되었다. 이는 조선 수군의 남해안 일대 제해권 장악과 함께 한성 이북 지역에 대한 일본군의 보급 문제를 가져와 일본군의 전반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떨어뜨렸다. 궁극적으로 이 전쟁의 국면을 이후 조선에 유리하도록 하는데 봉화 소천 등 경상도 북부의 여러 전투가 적지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17년 7월 1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8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9월 1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김경태, 「임진전쟁 초기 경상좌도 일본군의 동향과 영천성 전투」, 『군사』 95, 2015
- 김경태, 「임진전쟁기 경주 안강 전투와 강화 교섭 국면의 변동」, 『한국사학보』 62, 2016
-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 김진수, 「임진왜란기 박진의 군사활동과 평가」, 『한국사학보』 60, 2015
- 김호중, 「임란때 唐橋전투와 영남 북부지방 鄉兵의 항쟁」, 『역사교육논집』 23·24, 1999.
-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근시재 金垓의 의병활동」 『군자리, 그 문화사적 성격』, 토우, 2000
- 노영구, 「임진왜란 의병에 대한 이해의 과정과 새로운 의병 이해의 방향」, 『한일 군사문화연구』 13, 2012
-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善山 일대 일본군 동향과 부사 丁景達의 활동」, 『구미(선산)지역의 임진란사 연구』,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2016
- 봉화군, 『봉화군사』 2000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경북의병사』, 경상북도, 1990
- 이수건, 『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학교출판부, 1979
- 이형석, 『임진전란사』 상, 1867
- 이호준, 「임진왜란 초기 조선의 군사체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정진영, 「임란전후 상주지방 사족의 동향」, 『민족문화논총』 8, 1987
- 정진영, 「안동 지역의 임란의병」, 『안동문화연구』 4, 1990
- 정해은, 「임진왜란 의병 연구의 성과와 전망」, 『임란의병사의 재조명』, 안동시-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2012
- 정해은,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 안집사 金功의 역할과 활동」, 『영남학』 28, 2015
- 한영우, 『나라에 사람이 있구나-율탄 한효순 이야기』, 지식산업사, 2016

- 池内宏, 『文祿慶長の役』 別篇第一, 東洋文庫, 1936  
京口元吉, 『秀吉の朝鮮經略』, 白揚社, 1939  
北島万次, 『朝鮮日日記 高麗日記』, そしえて, 1982  
北島万次, 『豊臣秀吉の朝鮮侵略』, 吉川弘文館, 1995



Abstract

## The Development of the Battle of Bonghwa Socheon and Its Importance in the Early Years of Imjin War

Roh, Young-koo

When the Japanese Fourth Army invaded the northern area of Gyeongsang-do, the armies under Lyu Jong-gae's(柳宗介) command fought in the battle of Bonghwa Socheon and held the lin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this battle and appreciates influence of the battle upon the military situations of the rest of war years.

In the early state of the Imjin War, Lyu Jong-gae's righteous armies (義兵) of several hundreds volunteers defeated the invaders, leading to them being discouraged for a while. Lyu's units blocked Japanese armies' advance on the northern inner area of Gyeongsang-do for three days, although they ended up being ambushed and vanquished by Japanese invaders. Thanks to the battle of Bonghwa Socheon, other Joseon armies gathering near Andong were given a few days to organize their array for defense.

The military importance of the battle of Bonghwa Socheon lies in that it frustrated Japanese strategic goals that they connect Gangwon-do with Gyeongsang-do and bring these areas under control. Joseon armies, now had the footing of Northern Gyeongsang-do, engaged in a counterattack against Japanese armies and made them withered away in Gyeongsang-do.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battles occurred in the northern part of Gyeongsang-do played a critical role in tipping the balance in favor of Joseon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Imjin War.

**key words** : Lyu Jong-gae, Imjin War, Kim Leuk, Righteous Army, Bonghwa Socheon